

꾸준한 기술개발 통해 해외시장 개척

- 10년 이상의 전문기술과 노하우 가진 인력구성

QSI

(주)큐에스아이 (대표 오명석 www.qsilaser.com)는 광소자 부품중 핵심 부품인 Laser Diode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써, 과거 삼성전기에서 연구개발 및 현장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10여년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과 Know-How를 가진 인력들이 2000년 7월에 충남 천안시 성거읍에 EPI, FAB, PACKAGE 의 Full Line으로 약 120억을 투자하여 설립되었다.

국내에는 LD 전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로는 큐에스아이와 삼성전기만이 Full Line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LD(Laser Diode)란 방출광을 증폭해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반도체 소자로서 주입형 레이저라고도 한다.

다양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대응

큐에스아이에서 생산하는 Laser Diode는 파장이 635nm, 650nm, 780nm, 808nm, 850nm, 출력은 5mW, 7mW, 10mW, 30mW등 다양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635nm는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산업용은 아직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는 고난이도의 제품인 زیرا 이 제품을 생산하는 QSI의 기술력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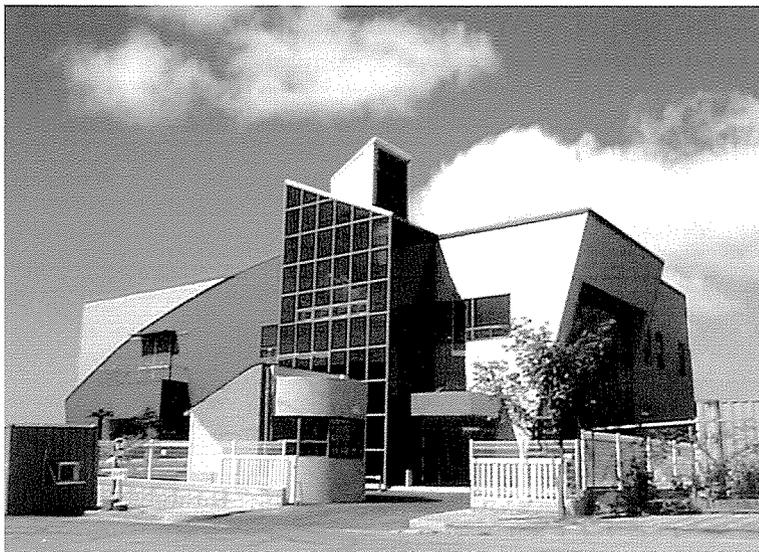
LD의 사용분야는 Laser Pointer, LSU(Laser Scanning Unit), DVD Player, CD-ROM등의 광 픽업과 모듈, Barcode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 Sensor, Optical leveler, 산업용 Laser 등의 여러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큐에스아이는 이중에서도 특히 벤처 및 중소기업에 알맞은 산업용 Laser 및 Barcode, Module 등에 집중하고 있다.

QSI

QSI는 창업 당시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하여, 2002

년 1월부터 대만 및 중국에 본격적인 수출을 하였고, 점차 시장을 확대하여, 현재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호주 등 세계 각국에 주요 고객을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오명석 사장은 “지난해에는 승인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의 대형 Barcode업체 Symbol사에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품질을 인정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세계 Bar Code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라며 뛰어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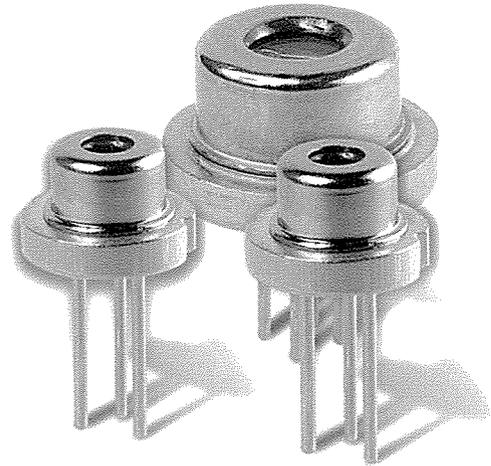
이러한 기술인정 및 노력을 통해 2003년 3월부터 수출물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HHP사와 Metrologic사, Olympus사 등에서 신제품에 대한 품질승인이 진행중에 있다.

광관련 전문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의 신뢰도 홍보활동을 전개

올해를 전직원이 창업이후 도약하는 첫단계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이 회사는, 이러한 회사의 도약에 맞추어 우수한 연구인력의 보강과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직접 해외 주요 업체를 방문하는 QSI만의 독특한 제품영업 방식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고객 만족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광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의 지속적인 홍보 및 거래선 발굴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의 광관련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의 신뢰도 및 꾸준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데 이어, 올해에도, 미국에서 열리는 Photonics West 2003에 참관하여 업체 동향 파악 및 바이어 발굴에 나섰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Laser 2003, 중국의 IOIT 2003, LED EXPO2003, Photonics Korea 2003 등에도 직접 참가하여 제품의 우수성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오 사장은 “이러한 지속적인 제품 및 회사의 홍보와 끊임없는 기



술개발을 통해 2~3년내 일본의 선진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이 세계 5대 광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기획홍보팀 윤희진〉

